

2020년 4월 1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현실화된 경기 침체 우려 부각되며 부진

미국 소매판매 사상 최대 급감(mom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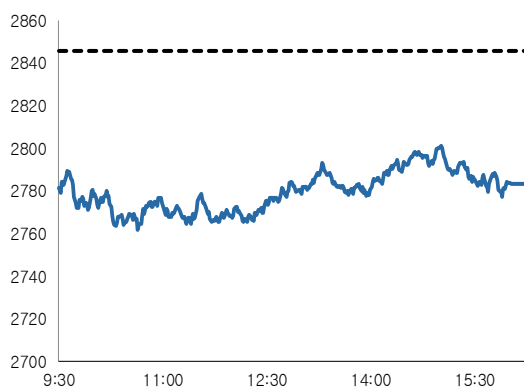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경제지표 악화, 실적 둔화, 국제유가 하락

미 증시는 전일 실적 부진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에너지와 금융주가 하락했으나, 커들로가 이번주에 경제 재개와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코로나 공포 심리가 완화된 데 힘입어 나스닥이 3.95%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임. 그러나 오늘은 전일에 이어 오늘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20 달러를 하회하자 세일 오일 기업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유입된 가운데 실적 부진과 소매판매, 산업생산이 급격하게 위축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특히 에너지와 금융주가 하락 주도(다우 -1.86%, 나스닥 -1.44%, S&P500 -2.20%, 러셀 2000 -4.31%)

전일에 이어 오늘도 국제유가의 하락은 지속. 특히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이어졌으나, 이번 국제유가의 하락이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부진의 문제였던 점을 감안 최근 하락 요인이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담으로 작용. 이 여파로 20 달러를 하회하자 세일 오일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며 에너지, 금융, 중소형 종목 등 관련 기업이 급락. 다만, 경제 재개 기대,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 둔화, 미 에너지부 장관과 신용평가사 피치가 산유국 감산으로 국제유가 바닥 확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관련 우려가 여타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지는 않음

한편,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8.7%,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5.4% 급감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실물 경제 위축이 현실화 되자 투자심리에 부담. 연준도 베이지북을 통해 필수 품목을 제외한 서비스업종과 대부분의 제조업이 악화 되고, 고용과 임금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발표. 물론 전일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 위원장이 이번 주 경제 재개와 관련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오늘 "3분기부터 경기는 반등이 가능" 하다고 주장해 경기 위축 지속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보여줘 시장 충격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1.72	1,857.08	홍콩항셱	24,145.34	-1.19		
KOSDAQ	+2.28	610.29	영국	5,597.65	-3.34		
DOW	-1.86	23,504.35	독일	10,279.76	-3.90		
NASDAQ	-1.44	8,393.18	프랑스	4,353.72	-3.76		
S&P 500	-2.20	2,783.36	스페인	6,839.50	-3.79		
상하이종합	-0.57	2,811.17	그리스	607.57	-3.28		
일본	-0.45	19,550.09	이탈리아	16,719.07	-4.7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금융 급락 지속

엑손모빌(-4.60%), 셰브론(-2.51%)은 물론 코노코필립스(-5.52%), EOG리소스(-4.69%) 등 셰일 오일 기업들은 국제유가가 20달러를 하회하자 약세를 보였다. BOA(-6.49%)와 씨티그룹(-5.64%)은 부진한 실적 여파로 하락했으며 골드만삭스(+0.16%)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채권 트레이딩 부문의 양호한 결과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전일 실적을 발표한 JP모건(-4.93%), 웰스 파고(-5.77%), BOK 파이낸셜(-5.02%) 등 여타 금융주는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부진했다. 비자(-4.96%), 마스터카드(-5.02%)는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자 하락했다.

한편, 캐터필라(-4.25%), 3M(-3.32%) 등 산업재와 GM(-5.74%), 포드(-4.91%) 등 자동차 업종은 산업생산 위축 여파로 하락했다. TJX(-3.84%), 메이시스(-7.58%) 등 백화점 업종은 소매판매 부진 여파로 하락했다. 다만, 유나이티드 헬스(+4.13%)은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아마존(+1.07%)과 넷플릭스(+3.19%)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매출 및 가입자 급증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라독헬스(+9.18%)와 온라인 회의 서비스 제공 회사인 줌 비디오(+6.82%) 등 온라인 관련 기업들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66%	대형 가치주 ETF(IVE)	-2.81%
에너지섹터 ETF(OIH)	-7.25%	중형 가치주 ETF(IWS)	-4.15%
소매업체 ETF(XRT)	-3.90%	소형 가치주 ETF(IWN)	-5.01%
금융섹터 ETF(XLF)	-4.33%	대형 성장주 ETF(VUG)	-1.57%
기술섹터 ETF(XLK)	-2.18%	중형 성장주 ETF(IWP)	-1.8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2%	소형 성장주 ETF(IWO)	-3.59%
인터넷업체 ETF(FDN)	-0.73%	배당주 ETF(DVY)	-3.97%
리츠업체 ETF(XLRE)	-3.85%	신흥국 고배당 ETF(DEM)	-3.15%
주택건설업체 ETF(XHB)	-5.5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53%
바이오섹터 ETF(IBB)	-2.49%	미국 국채 ETF(IEF)	+0.89%
헬스케어 ETF(XLV)	-0.51%	하이일드 ETF(JNK)	-0.97%
곡물 ETF(DBA)	-0.51%	물가연동채 ETF(TIP)	+0.10%
반도체 ETF(SMH)	-2.70%	Long/short ETF(BTAL)	+1.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45.34	-4.67%	-0.23%	+16.87%
소재	305.53	-4.51%	+3.50%	+11.24%
산업재	513.82	-2.82%	+1.12%	+5.34%
경기소비재	888.32	-1.57%	+8.16%	+19.43%
필수소비재	608.04	-1.56%	+4.07%	+3.60%
헬스케어	1,125.42	-0.52%	+6.63%	+11.65%
금융	359.22	-4.37%	+1.60%	+3.59%
IT	1,530.65	-2.19%	+4.92%	+12.75%
커뮤니케이션	161.70	-1.05%	+4.65%	+10.16%
유틸리티	297.74	-3.36%	+6.27%	+2.44%
부동산	208.96	-3.81%	+7.02%	+7.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전일 2.45% 상승했으나, 오늘은 3.05% 하락했으며, MSCI 신흥 지수 ETF 도 전일 2.29% 상승했으나, 오늘은 2.57%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23.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실물 경제지표의 급격한 위축과 실적 둔화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물론 뉴욕 주지사가 점진적인 업무 재개를 언급하는 등 코로나 공포 심리가 완화된 점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러한 호재성 재료 등은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미 증시 하락 요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유가가 20 달러를 하회하며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를 확대한 점, 실물 경제 지표의 급격한 위축이 경제 재개가 된다고 해도 개선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 수급 개선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는 부담이다. 더 나아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 폭이 예상을 상회해 밸류에이션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조정이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실물경제지표 큰 폭 둔화

미국 3 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8.7% 감소해 예상(mom -7.3%)를 하회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4.5%, 자동차와 가솔린을 제외한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는 전월 대비 25.6%, 의류는 전월 대비 50.5% 급감해 이를 주도했다.

미국 3 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5.4% 둔화돼 예상(mom -4.2%)를 하회했다. 제조업 생산도 전월 대비 6.3% 감소했다. 공장 가동률은 전월(77.0%) 보다 크게 위축된 72.7%에 그쳐 예상(74.0%)를 하회했다.

4 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전월(-21.5)은 물론 예상(-35.0)을 크게 하회한 -78.2 로 발표돼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9.3→-66.3), 고용지수(-1.5→-55.3) 등 모든 항목이 급감 했다. .

4 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72)은 물론 예상(60)을 크게 하회한 30 에 그쳤다. 2 월 미국 기업재고는 0.4% 감소했으며 판매대 재고 비율은 1.37 로 전월(1.39) 보다 소폭 둔화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20 달러 하회

국제유가는 2002 년 이후 처음으로 20 달러를 하회하며 마감 했다.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물경제지표가 부진하자 소비 둔화가 가파를 것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IEA(국제 에너지 기구)가 2 분기 하루 소비량이 2,310 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산유국의 감산(970 만 배럴)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부담이 되었다. 한편, EIA(미 에너지 정보청)가 지난 주 원유 재고가 1,925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정유시설 가동을 또한 전 주 발표된 75.6%를 크게 하회한 69.1%를 기록해 재고 증가 지속 우려 또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장 마감 후 시간 외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재차 20 달러를 상회한 상태다.

달러화는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안전 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되며 달러화에 대한 매수세가 급증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대한 우려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국제유가가 20 달러를 하회하자 러시아 루블화, 노르웨이 크로네, 브라질 헤알화, 캐나다 달러 등 상품 환율은 달러 대비 1~2% 내외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실물 경제지표가 예상 보다 부진하고, 국제유가가 20 달러를 하회하자 하락 했다. 특히 2 년물이 2011 년 9 월 이후 최저 수준인 0.195%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모든 지역이 매우 불확실하고,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더불어 전일 IMF 가 올해 글로벌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9.87	-1.19	-15.91	Dollar Index	99.559	+0.68	-0.56
브렌트유	27.69	-6.45	-13.12	EUR/USD	1.0911	-0.63	+0.49
금	1,740.20	-1.62	+3.36	USD/JPY	107.44	+0.21	-1.28
은	15,654	-4.20	+0.79	GBP/USD	1.2530	-0.74	+1.19
알루미늄	1,507.50	+0.27	+2.41	USD/CHF	0.9646	+0.48	-0.74
전기동	5,111.50	-1.00	+4.66	AUD/USD	0.632	-1.89	+1.44
아연	1,931.00	+0.44	+1.39	USD/CAD	1.4102	+1.58	+0.64
옥수수	326.75	-1.66	-3.11	USD/BRL	5.2433	+1.55	+0.37
밀	540.50	-1.68	-1.28	USD/CNH	7.0715	+0.35	+0.04
대두	851.75	-0.44	-1.07	USD/KRW	1217.30	-0.05	-0.32
커피	121.20	+2.41	+0.12	USD/KRW NDF 1M	1223.50	+1.00	+0.64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32	-12.04	-14.06	스페인	0.858	+2.10	+2.20
한국	1.462	-1.30	-11.80	포르투갈	0.972	+3.40	+0.20
일본	0.014	-1.60	-1.00	그리스	2.039	+14.20	+24.80
독일	-0.465	-8.80	-15.90	이탈리아	1.881	+10.00	+23.20